

# 뇌교육 취업상담과 연관된 취업 사례 연구

김영준\*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산업공학부 정보통신과

e-mail: [yjkim@inhatc.ac.kr](mailto:yjkim@inhatc.ac.kr),

## A Case Study an Employment on Employment Counseling associated Brain based Education

Young-Jun Kim\*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eering,

INHA Technical College

### 요 약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근본적으로 취업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취업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취업환경 속에서 뇌교육 기반 취업상담 방안을 개발하여 취업 태도의 새로운 전환, 자기 효능 감의 증대,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시켜 취업에 도움이 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취업 현실세계와 연결 시키는 모델을 만들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통합적인 통찰력과 열정이 넘치는 도전력이 있는 학생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인 취업 인재를 개발 한다.

###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래의 혁신은 파괴적 혁신일 것으로 예측된다 [1]. 그중 눈여겨 볼 것은 직업의 변화이다. 또한 전공취업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면 취업자의 50% 정도만이 대학에서 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2].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2년제 대학인 I대학 J과의 취업 사례로 재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분석하여 취업률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I대학은 취업률 중 대비 유지 취업률은 높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취업캠프, 모의면접, 선배와의 만남, 취업특강등이 있지만 학생 개개인에 맞는 취업상담은 생각만큼 어렵다.

[표1] 학교 취업지도 내용

대상	단계	취업지도내용
1학년	진로 지도	직무적성검사, 개별상담진로 방향지도 직업직무에 대한 이해, 정보탐색교육 구체적인 희망직무, 취업목표기업설정 목표기업취업을 위한 역량강화계획수립
2학년 3학년	실전 취업 지도	기업의 채용정보탐색 입사서류클리닉, 모의면접지도 채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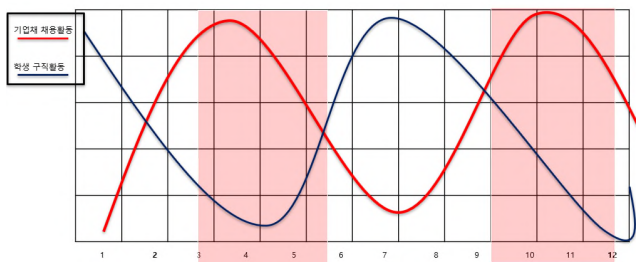
학생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적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3]. 또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취업 확률이 높다 [4]. 형태와 무관하게 상담은 취업경쟁률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5]. 많은 취업상담 건수는 취업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착안을 하게 되었다. 전문대학은 2학년 2학기가 취업 학기이다. 이 타이밍이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취업 상담 시기이다. 2학년은 5반으로 구성되고, 5반에 실습수업을 들어갈 수 있었으며, 2학년 2학기 매주 학생들과 실습 수업으로 만나면서 수업 전후로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학생들과의 취업상담 신뢰지수가 매우 높아졌다. 위의 취업상담 노력은 학교세계와 취업세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교수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2014년 I대학 J과 건보 취업자 46명 취업 성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 2. 관련 유사 연구

진로에 대한 목표참여 행동은 진로를 결정하는 진

로의사 결정수준 및 학업성적과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본 연구에서는 취업목표 대상을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 관계자의 관점에서 취업대상자에게 부족한 것으로 1순위는 현장경험 2순위는 인성으로 나타났다[7]. 이점에 착안하여 취업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영어등 어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대 졸업생 취업자들은 실제로 인성등 다른 요인들이라고 생각한다[8]. 중소기업은 자격증이나 인턴, 관련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이 깊고 좁은 분야에 대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유연성과 문제해결능력이 더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 재량도가 높기 때문에 책임감과 열정이 높은 인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9]. 취업상담을 하는데, 뇌교육 기반에 근거한 취업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10]. 진로문제를 가진 사람과 성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대체로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1]. 취업상담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취업지도 어려움은 입사 준비부족, 취업의지 박약, 입사 후 조기퇴사, 정보력 부족이다. 다음 그림1[12]은 구직자의 동선과 구인자의 동선이 1년을 12개월로 했을 때 서로 미스 매치한다. 여기서 구직자는 구인자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그림1] 구직자의 동선과 구인자의 동선 미스매치

취업준비 학생들이 미스 매치하는 것을 모르기에 졸업할 때까지 취업타이밍과 상관없이 취업계획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대학의 가족회사와 학생 간의 맞춤형 취업 정보시스템구현에 관한 제안도 있다[13].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양 온라인 교과목으로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관련 교과목등은 중소기업 취업시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난다[14]. 문제해결 능력은 참

신한 아이디어 제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현 가능한 목표 및 방향설정이며, 의사소통능력은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다[14]. 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 목표는 의외로 진로교과목과 관련 교양과목들을 수강하여도 실제 영향은 크지 않다. 현실적인 이유는 진로 교과목을 담당된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강사들의 직장 경험이 부족하여 이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 2.1 취업 준비 행동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행동, 구직행동, 진로준비행동등으로 구분할수 있다[10]. 학생 중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취업 사이트를 탐색하는 학생도 있다. 구직행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취업마인드를 가진 학생은 취업 면접의 기회가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하다. 높은 단계의 구직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점을 준비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는 계획을 하고 노력하지만, 역설적으로 엄중한 취업 현실을 회피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낮은 단계의 구직행동이다. 또한 이런 취업에 대한 이중성은 직접 현실과 대면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인적 담당자와 CEO들이 학점과 영어 그리고 자격증에 기반하여 채용한다고 학생들은 생각하나, 현실은 다르다. 바로 투입 가능한 취업준비생을 원한다. 즉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장 경험이 없으면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하는 학생은 찾기 힘들다. 소극적인 구직행동이다. 생산직 3교대는 절실함이 없으면 구직행동이 힘들다. 기숙사생활은 또 다른 군대생활이기에 그렇다. 현장에서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직장에서의 성실성이란 책임감을 말하며, 이는 결국 인성이다. 중소기업은 직장 근속기간이 직장의 경쟁력과 일치한다. 취업 요소중의 중요 요소로 통근 거리가 있다. 장기간 원거리를 출근하면 피로로 지속적인 근무가 힘들기 때문이다.

## 3. 연구 목표

구직자 유형별 취업지도 주체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공에 관심이 없으나, 스펙이 높은 유형, 전공에 관심도 많고 스펙도 높은 유형, 전공에 관심도 없고 스펙도 낮은 유형, 전공에 관심은 많으나 스펙이 낮은 유형이다[12]. 이중 학생

유형별 취업 목표대상은 전공에 관심도 없고 스펙도 낮은 유형 D로 정했다.

[표2] 학생유형별 취업지도

학점,자격증,어학점수 높음			
전공 관심 적음	어학특기자 편입,공무원,경찰C	알아서 취업이 되는 그룹 A 대기업,중견기업	전공 관심 많음.
	타분야 취업가능자 D	전공관련 중소기업 B	
학점,자격증,어학점수 낮음			

위의 그림에서 D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취업시키려고 노력 하였다. 다른 유형 A, B에 비해서 도움이 필요하며, 동시에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학생들을 취업상담 하기 위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뇌운영 시스템[15]을 적용하였다.

[표3] 뇌교육 단계에 따른 취업지도 방안

1단계 뇌감각 깨우기	1차 취업상담 , 공감하기, 감정이입 취업 마인드 도입하기, 우뇌 깨우기
2단계 뇌유연화하기	2차 취업상담, 자기소개서, 이력서 스토리텔링 첨삭 지도, 본인이 못 찾는 커리어 찾기 우뇌 활성화
3단계 뇌정화하기	3차 취업상담, 이미지 변신 지도, 선한 이미지 강화, 신문출처 수치 면접때 활용, 면접 동영상 촬영, 면접 시뮬레이션체험, 자기 모 니터링, 취업역량지수 높이기, 편도체 안정 화
4단계 뇌통합하기	4차 취업상담, 취업 장소 미리 알려주기 및 면접 같이가기, 취업면접 후 연락 하기, 취 업 뇌 사고회로 형성
5단계 뇌주인되기	5차 취업상담, 취업후 학교 학사일정, 같이 준비하기, 취업 뇌 사고회로 연결

[표4] 뇌교육 단계에 따른 의식, 무의식, 뇌회로 변화

뇌교육단계	의식	무의식	뇌회로
1단계 뇌감각 깨우기	의사없음	최초결정 2개 자아	고민시작
2단계 뇌유연화하기	의사없음	중간결정 2개 자아	고민계속
3단계 뇌정화하기	의사있음	최종결정 1개 자아	고민종료
4단계 뇌통합하기	면접실행	행동시작 1개 자아	취업 뇌회로형성
5단계 뇌주인되기	자존감 상승	자아성찰	취업 뇌회로 네트워크

현재 I대학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시스템은 상담의

경우 학업 상담, 병무 상담등이 있으며, 학생에 관한 상담을 개인정보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학교는 사업에 따라 여러 다양한 취업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실질적으로는 2학년 2학기 실습과목을 진행하였기에 매주 수업 전후 취업상담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중간시험 전후로 취업준비의 단계가 학생들 마다 달랐다. 취업준비의 단계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취업시 중요한 요소를 매칭시키고, 불필요한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낮추는 것이 취업의 성공요인이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뇌교육에 기반한 취업상담이 필요하였다.

### 참고문헌

[1] Downes,L, and Nunes, P. Big bang disruption strategy in the age of devastating innovation, New York: Penguin Group. 2014

[2] 조한국, "4차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Vol, 11, No2 pp. 53-89, 2017.

[3] 김민수, "대학생 취업인식실태를 통한 취업전략", 조선대학교 지식대학경영원, 지역개발연구 9(1), pp. 435-463, 2004.

[4] 채창균, 김태기, "대졸청년층의 취업성과결정 요인분석", 직업교육연구논문지 제9권 제호 pp. 89-107, 2009.

[5] 김상균외 2인, "대학의 취업지원노력이 학생들의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데이터분석학회 논문지 Vol. No. 6B, pp. 3077-3086, 2013.

[6] 김장희,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 영향 요인 및 진로의사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33(2), pp 121-144, 2014.

[7] 전윤선,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8] 한국 고용 정보원 조건 보도 자료 2014년 5월 21일

[9] 김달진, "취업 중소기업", 시대에듀, 2014.

[10] Smith C. L., & Gethar B. "The impact of job search strategy and interviewer assessments of employ ability on multiple measure of labor marker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s. Miami. FL.. 1991.

- [11] Gold, J.M.,&Scanlon, C.R.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unseling duration of carer and noncareer cli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pp. 186-191, 1993.
- [12] 취업지도과정 취업지도교수 워크숍자료, 인하공업전문대학 취업지원센터, 2012.
- [13] 장봉임외 2명, "취업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구현", 한국정보통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pp. 880-882, 2013.
- [14] 김선희외 2인, "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업기초 능력증진을 위한 운영방안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pp. 57-77, 2012.
- [15] 편집부, 뇌교육원천기술, 뇌 운영 시스템 B.O.S. Brain Operation System,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 74, pp. 14-17, 2019.

**Young-Jun Kim**



was received the B.S. degree in Electronic Engineering from Hanyang University in 1986, and M.S. and Ph.D. degrees in Precisio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Hanyang University in 1991 and 2001, respectively.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Engineering at Inha Technical College. His research interests have included a new method of teaching, humanistic education, Communication Policy.